



황희찬

'황소' 황희찬 EPL 무대 누빌까

이번 시즌 13골 등 경기력 인상적
가성비 좋아 '뉴노멀 시대' 더 주목
코로나로 이적시장 얼어붙었지만
에버턴 등 구단들 지속적 관심

'황소' 황희찬(24·잡츠부르크)이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무대를 누비는 그림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잠시 멈췄지만, 황희찬의 2019-2020시즌은 그가 유럽 무대를 밟은 이래 가장 뜨거웠다. 정규리그 8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골 등 총 13골을 기록 중이다. 시즌이 재개하면 유럽 진출 뒤 한 시즌 최다 기록인 2016-2017시즌의 16골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그라운드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숫자'보다 훨씬

인상적이다. '황소 돌파'의 파괴력에 경기 흐름을 읽고 완급 조절을 하는 능력이 더해졌다. 패스 길을 읽고 미리 움직이는 판단력에 발재간까지 업그레이드됐다. 지난 10월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에서 세계 최고 수비수로 꼽히는 피르질 판데이크를 발재간으로 농락하고 골을 터뜨려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황희찬의 맹활약은 빅리그 팀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지난해 겨울부터 프리미어리그의 에버턴과 울버햄프턴, 크리스털 팰리스 등이 황희찬 영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계속 흘러나왔다. 코로나19 탓에 유럽 이적시장이 얼어붙다시피 했지만, 황희찬의 이름은 여전히 현지 보도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저평가된 몸값의 아시아 선수라는 점이 코로나19 시대에 더 확실한 매력 포인트로 여겨지는

분위기도. 재정 위기에 직면한 클럽들에 이른바 '가성비'가 좋은 황희찬은 좋은 선택지다. 이적 정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이트인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황희찬의 몸값은 1000만 유로(약 135억원) 수준이다. 영국 리버풀 지역지 '에코'는 최근 에버턴의 이적 동향을 소개하면서 "올여름 큰돈을 투자할 가능성이 희박해진 에버턴으로서는 '양'보다 '질'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에버턴은 황희찬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오스트리아 프로축구가 재개하면서 황희찬을 원하는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눈길은 오는 29일 열리는 잡츠부르크와 라스테나우의 오스트리아축구협회컵 결승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잡츠부르크의 정규리그 첫 경기는 6월 3일 라피트 빈과의 홈 경기다. 황희찬이 코로나19 사태 전 보여줬던 경기력을 다시 펼쳐 보여 잉글랜드 무대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키미히 결승골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 꺾고 7연승 질주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1-2위 대결에서 유주아 키미히의 결승골을 앞세운 '선두' 바이에른 뮌헨이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제물 삼아 리그 8연패를 향해 질주했다. 뮌헨은 27일(한국시간)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도르트문트와 2019-2020 분데스리가 28라운드 원정에서 전반 43분 터진 키미히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내 1-0으로 이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시즌이 중단됐다가 재개한 뒤 3연승을 포함해 최근 리그 7연승, 14경기 무패(13승 1무)를 이어간 뮌헨은 승점 64로 선두를 유지했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 6경기를 남긴 뮌헨은 도르트문트(승점 57)와 승점 차를 7로 벌려 정규리그 8연패 달성 도전에 바짝 다가섰다. 도르트문트는 3위 RB라이프치히(승점 54)가 28일 11위 헤르타 베를린(승점 34)을 꺾으면 승점이 같아지지만 골 득실에서 밀리게 돼 2위 자리를 내주게 되는 위기를 맞는다. 전반 43분 페널티아크 오른쪽 부근에서 볼을 이어받은 키미히는 골키퍼의 키를 살짝 넘기는 재치 있는 로빙 슈팅으로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전반을 1-0으로 마친 뮌헨은 후반에도 도르트문트의 공세를 막아내며 귀중한 승점 3을 확보하고 우승을 향한 연승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는 후반 13분 홀란드가 페널티지역 왼쪽 부근에서 시도한 일발 슈팅이 뮌헨의 수비수 보아렝의 몸에 맞고 골절되는 상황에서 '핸드볼 파울' 논란도 불거졌다. /연합뉴스



"비커~" 레반도프스키의 질주 26일 도르트문트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독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 뮌헨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왼쪽)가 제이든 산초를 상대로 힘찬 드리블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과학대 공공스포츠클럽 선정...전남 13개로 늘어

목포과학대학교가 공공스포츠클럽에 선정됐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5일 목포과학대학교(사진)를 포함한 전국 4곳을 2020년도 신규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선정했다. 목포과학대가 새로 선정됨에 따라 전남의 공공스포츠클럽은 13개로 늘었다. 전남도체육회는 공공스포츠클럽 확충으로 생활-전문체육이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목포과학대는 인구 20만 이상인 대도시형으로 올해부터 5년 동안 최대 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축구, 파크골프, 농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등 5

개 종목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 회원에게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남에는 목포, 영암, 순천, 광양 등 12개의 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다. 김재무 전남체육회장은 "공공스포츠클럽이 학교·생활·전문체육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이끌어내고 우수선수 양성, 은퇴선수와 체육지도자 일자리 제공 등 스포츠복지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프로농구 '아시아 쿼터' 도입 일본 선수 영입 가능

국내 남자 프로농구에 '아시아 쿼터'가 도입된다. 우선 일본 선수부터 될 수 있다. KBL은 27일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열린 제7차 아시아에서 일본프로농구 리그인 B-리그를 대상으로 한 아시아 쿼터 제도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구단은 자율적으로 일본 선수(귀화·이중국적·혼혈 선수 제외) 1명을 영입할 수 있다. 일본 선수는 국내 선수 기준으로 출전하며, 셀러 리프트와 선수 정원에 포함된다. 국내 선수도 일본 B-리그에 진출할 수 있다. B-리그는 1부에만 18개 팀이 있으며, 2~3부리그도 있다. KBL은 "선수 육성과 리그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 확대와 마케팅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아시아 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중국, 필리핀 리그와도 교류 활성화를 통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3차 임시총회에서는 부산 kt 구단주를 황창규 회장에게 구원모 대표이사로, 서울 삼성 단장을 이진원 본부장에서 김재산 BE 전문위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사안도 승인했다. 아울러 프로농구 홍보와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0~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연맹-구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0 KBL 콘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했다. 콘퍼런스에서는 KBL 통합 티켓 시스템 및 고객 데이터 분석, 뉴미디어 시장 조사 및 향후 방향, CRM 시스템을 활용한 프로농구 마케팅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된다. /연합뉴스

라이벌 신진서-박정환 또 결승에서 맞대결

내달 15일 쏘팔 코사놀 최고기사 결정전 한국 바둑 랭킹 1-2위를 다투는 신진서 9단과 박정환 9단이 '쏘팔 코사놀 최고기사 결정전' 초대 우승컵을 놓고 맞붙는다. 쏘팔 코사놀 최고기사 결정전은 국내 랭킹 상위 8명의 기사 중에서 최고를 정하는 대회다. 지난 26일 28국에 걸친 리그전이 모두 종료된 가운데 결승전에는 랭킹 1위 신진서와 2위 박정환이 진출했다. 신진서가 지난 11일 24국에서 박정환 9단에게 승리하며 일찌감치 리그전 1위를 확정했다. 최종 전적은 6승 1패다. 박정환의 리그전 최종 전적은 5승 2패다. 김지석 9단이 박정환과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했지만, 26일 리그 최종전에서 박정환에게 패하며 박정환에게 결승 진출권을 내줬다. 김지석은 4승 3패를 기록했다. 만약 김지석이 박정환을 꺾었다면 승자승 원칙에 따라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다. 지난 2월 17일 박정환에게 불계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신진서와 박정환은 다음 달 15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판교 K바둑스튜디오에서 결승 5번기로 초대 챔피언을 정한다. 최종 5국은 6월 29일 열린다. 둘은 지난 2월 LG배 결승 3번기에서도 만났다. 당시에는 신진서가 파죽의 2연승으로 박정환을 꺾고 생애 첫 세계 메이저대회 타이틀을 따냈다. 신진서는 이달 초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울스타 연승전 최종 9국에서도 박정환에게 불계승을 거두며 '극복팀'의 우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신진서는 이번 쏘팔 코사놀 최고기사전에서 박정환에게 일격을 당했다. 전승을 질주하다가 지난 25일 자신의 마지막 대국에서 박정환에게 패한 것이다. 상대 전적은 박정환이 16승 6패로 신진서에게 앞서있다. 이 대회 우승자는 7000만원의 상금을 받고, 도전기로 열리는 차기 대회에 챔피언 자격으로 출전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창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2관 언더워터
- 3관 아홉 스님, 초미의 관심사
- 4관 더 플랫폼
- 5관 프리즌 이스케이프
- 9관 미스비헤이버, 날씨의 아이, 레미: 집 없는 아이, 호텔 레이크
- 7관 세네카를 위대한 쇼맨, 그림, 톰보이
- 8관 세네카를 아홉 스님, 하이쿠!! 또 다른 도전 오퍼나지: 비밀의계단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최대주 感應動通
2020. 5.21.(목) ~ 6.1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GAC기획공연 - 포커스
선우정아 콘서트
2020. 6.14.(일) PM 5: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포커스4
판소리 1인극 <방탄소년단>
2020. 7. 3.(금) ~ 4.(토)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